

폭염에 에어컨 AS 대란...능력 수리에 분통

고장 수리 요청하면 예약 밀려 최소 2주 기다려야 올며 겨자먹기 새로 설치도...관련 민원 매년 증가세

#1.문예자(여·55)씨는 지난 4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살고 있는 딸(26)로부터 집에 설치된 S사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서비스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오전 9시부터 전화를 했지만 상담이 밀린 탓에 전화 연결에만 30여분 넘게 걸렸다.

가까스로 상담원과 연결이 됐지만 상담원은 "고객님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은 예약이 밀려 최소 2주 이상 걸린다"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문씨는 "에어컨 없이 지낼 수가 없어 사설 수리업체를 불러 에어컨을 고쳤지만, 이것마저도 3일이나 걸린 탓에 온 가족이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면서 "가뜩이나 더운데 에어컨 팔기에만 급급하고 AS 처리는 뒷전인 가전업체의 행태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에어컨만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

에어컨이 고장나 한증막으로 변한 미용실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어 빠르게 S사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넣어 수리를 요청했지만, 고치는데 2주가 걸린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D사 제품을 새로 구매했다.

A씨는 "에어컨 없이 미용실 운영을 할 수 없어 올며 겨자먹기로 에어컨을 새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에어컨 고장 관련 A/S(사후서비스)마저 지연되면서 광주지역 소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신규 에어컨 설치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고장 AS요청에는 예약이 밀렸다는 이유 등으로 2주일 넘게 지연 방문을 일삼아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

트리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광주지역 에어컨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66건 ▲2016년 124건 ▲2017 190건 등으로 총 38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여름철인 7~8월 접수 건수는 총 238건으로, 전체 62.6%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상담이 집중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달부터 지난 25일까지 상담 건수만 56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 달간 한 차례도 없었던 피해구제 신청도 이달에만 2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3년간의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설치 지연·불이행, AS문제가 66.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설치 관련 문제였다.

이는 무더위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리 요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처할 수 있는 AS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AS기

사들이 쉬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하고 있지만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당장 인력이 부족해 고장건수가 많은 수완지구 등은 2주일 이상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급한 마음에 개인 경비를 들여 공식 서비스 업체가 아닌 사설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최소 3일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또 사설업체는 같은 고장이 반복되더라도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이종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새로 구입하는 에어컨의 경우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설치해 주고 있다. 실제 이날 광주시 남구에 있는 S사 전문 판매점에 확인한 결과, 에어컨 구매 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설치를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제조업체들이 AS기사들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소비자 스스로 AS신청이 몰리는 여름이 오기 전 미리 에어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에어컨 과열 불·고교생 익사...잇단 폭염 사고

여수 펜션서 화재 27명 치료 백운산서 물놀이 10대 숨져 여수 해양공원 바다 50대 구조

전남지역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고교생이 숨지는 등 폭염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오후 1시10분께 광양시 진상면 백운산의 한 펜션 인근 계곡에서 A(17·고교 1년)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과 119에 따르면 광양에 거주하는 A군은 이날 친구 6명과 펜션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머물면서 물놀이를 하던 중 계곡물(수심 2.8m)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피서객들이 의식을 잃은 A군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실족이나 수영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새벽 1시20분께에는 여수시 중앙동 소재 5층 펜션에서 불이 나 투숙객 90여명이 대피했다. 이 중 27명은 연기 등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과열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새벽 2시께에는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바다에서는 주민 B(여·57)씨가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와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여수해경구조대는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암벽과 선박 사이에 있던 B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을 이송했다. B씨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혼자 해양공원을 거닐다 실수로 바다에 빠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9시께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등대 앞 150m 해상에서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낚시객을 태운 소형 낚시배 C호(2.78t·승선원 3명)와 어선 M호(83t·승선원 7명)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C호에 타고 있던 선장 추모(43)씨 등 3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인근 조업 중인 어선 재광호(1.27t)에 의해 3분 만에 구조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유두절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용전들노래 정기공연이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용전마을 들녘에서 열렸다.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용전들노래의 정기공연은 매년 유두절(음력 6월15일·머리를 감으며 더위를 쫓는 세시풍속)에 개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시기본계획 어긋나는 고층 아파트 건립 안된다”

광주고법 여수 화장동주택조합 변경요구 항소 기각 조합원 350여명 100억원대 계약금 날릴 판

법원이 여수시 화장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소유자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조합원 350여명은 이미 투자한 계약금 100여억원을 모두 날릴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부지소유주 A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 건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화장동주택조합은 화장동 무선지구 일대에 22~30층 558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을 목표로 지난 2015

년 9월께 설립돼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A씨는 여수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지만 여수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지만, 도 행정심판위는 여수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

다. A씨는 다시 지난해 8월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기각됐다.

조합측은 이 같은 기각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난해 3월 여수박람회장에 주택홍보관을 설립하는 등 조합원을 모집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조합원 350여명 중 일부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홍보비 등으로 계약금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 대표 B(48)씨를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순천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술먹고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모 농협 앞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진월동의 모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구급차안에서 구급대원 A(32)씨

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씨는 자전거를 타던 도중 넘어졌고, 이를 본 한 행인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112에 신고해 119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윤씨는 이날 음주상태에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혼 소송 중 아내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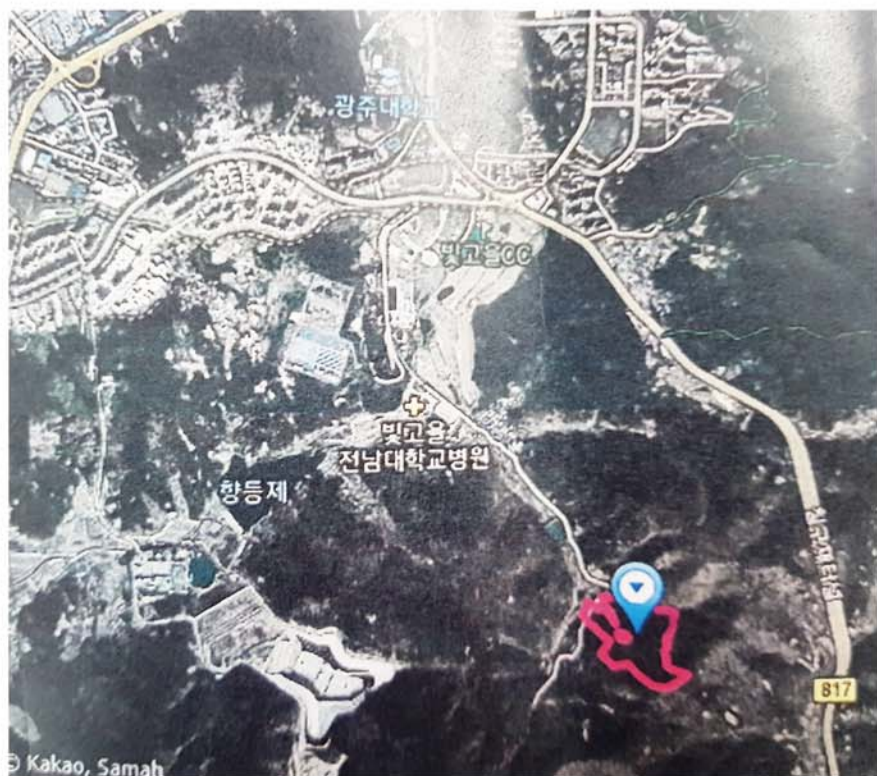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이혼 소송 중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가 아내의 뒤늦은 선처호소에도 징역형.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제1형사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이 명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도 이수토록 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직 부부 사이다.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항소심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